

기독교적인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삶을 여는 교육”



종합토론에서는 공교육 현장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고민이 공유됐으며, ‘부담’이 아닌 ‘기쁨과 동행’으로서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신현호 교수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임고운 교수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강영택 교수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박상진 교수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창립 20주년, ‘가르침’ 본질 성찰 정의보다 비유로… ‘가르침’을 다시 묻다
현장 교사들이 말하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실제 ‘개인’의 역량을 넘어 ‘공동체’의 과정으로 정답이 아닌 사유로… ‘기독교 세계관’ 재점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창립 20주년을 맞아 열린 학술대회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의 본질을 다시 묻는’ 논의가 이어졌다. 학자들은 기독교적 가르침을 교리 전달이나 특정 세계관 주입으로 이해하는 통념에서 벗어나, 삶을 여는 언어이자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는 가르침으로 재정의했다.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서울 마포구 숭실비전센터에서 열렸으며, 신학교육학 연구자 4인이 발제자로 나서 기독교교육의 신학적 토대와 교육 현장의 실제, 그리고 인식론적 성찰을 함께 짚었다.

첫 발제에 나선 신현호 교수(장신대)는 ‘기독교적 가르침 속 신학적 메타포를 주제로, 기독교적 가르침은 개념이나 정의로 환원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신교수는 “기독교 신앙은 본래 이야기와 비유, 곧 메타포를 통해 전승돼 왔다”며 “가

르침 역시 정답을 설명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게 여는 언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기독교교육이 성과와 방법 중심으로 축소되면서 가르침의 신학적 깊이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학적 메타포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고운 박사(이화여대)는 교사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현장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이 어떻게 이해되고 실천되고 있는지를 조망했다. 임 박사는 공립사립대안학교 교사들의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입시와 경쟁 중심의 기존 교육에 대한 회의 속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사들에게 기독교적 가르침은 특정 내용을 더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을 어떤 존재로 대하며 어떤 관계를 맺느냐의 문제로 나타났다”며 “돌봄과 한데, 삶의 태도를 통

해 신앙이 드러나는 방식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강영택 교수(우석대)는 자전적 문화기술지 연구를 통해 기독교적 가르침의 현실을 ‘역설’과 ‘공동체’라는 키워드로 풀어냈다. 강 교수는 “기독교적 가르침은 언제나 모순과 실패를 동반한다”며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개인의 역량이나 탁월한 교사 개인의 성취로 이해하기보다, 갈등과 한계를 함께 견디는 공동체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박상진 교수(한동대 석좌·장신대 명예)는 ‘기독교교육 인식론’에 근거해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친다’는 표현 자체를 성찰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박 교수는 “기독교적 가르침이 정답을 제시하는 교육으로 오해될 때, 오히려 사유를 단아바릴 위험이 있다”며 “기독교적 가르침은 모든 질문에 기독교적 답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알고 판단할 것인가를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기독교적 가르침이 교리 주입이나 이념 교육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지식 전달을 넘어 삶과 관계, 사유의 방식 전반을 형성하는 교육이

여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발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공교육 현장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현실적인 고민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국·공립학교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을 실천할 때 느끼는 거북한 부담감을 희생이 아닌 기쁨의 소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상진 교수는 “부담을 짊어지고 무엇인가를 더 하려는 접근보다, 교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가르침이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교사가 성장하는 만큼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흘러가게 된다. 기쁨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강영택 교수 역시 ‘희생’이라는 언어에 경계를 표하며, “학생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겠다는 마음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과 함께 간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훨씬 덜해진다”며 “기독교적 가르침은 혼자 애쓰는 헌신이 아닌,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지난 20년간 축적해 온 기독교교육 연구를 돌아보는 동시에, 기독교학교와 교회 현장에서 ‘기독교적으로 가르친다’의 의미를 다시 질문하는 계기가 됐다. 백선영 기자

“낙태약 허가 추진, 태아 생명 침해… 여성 건강도 위협”

태여연, 기자회견 열고 성명서 발표… 식약처에 의견서 전달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은 최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인공임신중절 약물(미페프리스톤 등) 도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태여연은 성명에서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약물을 허가하려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불법적 시도라고 규정하고, 낙태약이 태아 생명과 여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태여연은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낙태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미 국내 제약사가 영국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낙태약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점을 지적했다. 태여연은 “정부·여당과 식약처는 태아 생명보다 약물 도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이를 기정사실화한 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태여연은 오유경 식약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인공임신중절 약물 도입은 이미 국정과제로 결정됐다”고 밝힌 발언을 문제 삼으며, “식약처가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은 약물 도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이며, 여성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태여연은 안전성 문제를 성명서에서 상세히 제기했다. 성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과 2021년에 진행한 낙태 실태조사를 인용해 “약물 낙태자의 71.4%가 추가 수술이 필요했다”며, 실제 사례를 근거로 약물 낙태가 결코 ‘간단한 수술’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자료를 인용해 “낙태약 부작용이 10.93%에 달한다”고 밝히고, 과다출혈·패혈증·감염·자궁 천공 및 파열 등 심각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FDA와 영국 의약품청이 발표한 임신 10주 이후 약물 낙태 실패율 13% 이상 수치를 제시하며 “결국 외과적 수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미국생명윤리산부인과학회(AAPLOG)가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며 “수많은 여성이 ‘타이레놀보다 안전하다’는 홍보를 믿고 복용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태여연은 “정부가 약물의 위험성을 축소하고 여성에게 심각한 건강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여연은 성명에서 법적 측면도 강하게 지적했다. 성명은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한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행법을 조정하라는 취지”라며 “헌법 제269조·270조의 다수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낙태는 여전히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 공백은 법 개정 필요성을 의미할 뿐,

정부가 임의로 낙태약을 허가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명은 2021년 대한산부인과회 사회 입장을 재인용하며 “법적 근거 없이 낙태약을 허가하면 의료진이 불법 시술자로 전락하며 범죄자로 내몰린다”고 주장했다. 의사회가 밝힌 “입법 없는 약물 허가 결정은 직권남용으로 고발 대상이 된다”는 문구도 성명서에 포함됐다.

태여연은 헌법 제36조 제2항에 명시된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정부가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낙태약 허용은 태아 생명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이는 행위이며, 여성 건강권을 침해하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생명권을 침해하는 시도는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이념적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태여연은 성명서에서 식약처와 정부에



태여연의 식약처 낙태약 허가 반대 집회 현장. ©태여연

▲낙태약 허가 계획 즉각 중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전 어떠한 약물 허가도 불가 ▲여성 건강과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존중 입법 추진 ▲낙태약 도입 및 만삭 낙태 합법화 시도 전면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카일생명존중 대표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길수 목사의 영상 송출 후 금글로리아 홍보위원, 이현호 목사, 박미숙 시민대표 등이 발언했다. 성명 낭독은 이우민 간사가 맡았고, 이후 카일생명존중 회원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제양구 교수 등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종료 후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카일생명존중 회원들의 퍼포먼스. 낙태 약물로 피를 흘리는 산모 모습. ©태여연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노형구 기자

용산 처음이자 마지막 주택수 제외 실투자금 1억원대 투룸 오피스텔 분양

현대자동차연구소 (착공)

용산국제업무지구 (착공예정)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전자상가 열거중)

GRAND OPEN
선착순 분양

호랑공원앞역

용산역

1 용산역
4 신용산역
GTX-B (매장)
신대문역
KTX (매장)
경의중앙선

비교 불가! 오피스텔 위치 끝판왕

아시아 실리콘밸리 착공 / 용산 철도 지하화 개발
현대차 모빌리티 연구소 착공 / 국제업무지구 착공 예정
대한민국 핵심지역! / 대체불가 위치 오피스텔

압도적 스펙 그 어떤 곳과도 다릅니다

프리미엄 발렛 / IoT 시스템 스마트 미러 / 25cm 더 높은 층고와 개방감 / 프라이빗 피트니스

이런 분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일체 수익 극대화 원하는 분 / 개발호재로 시세차익을 원하는 분
주택수 부담없이 추가 투자 원하는 분

자신있게 말씀 드립니다

용산 마지막 1억대 투룸 투자 / 한시적 제정되는 주택수 제외
망설이는 순간 용산에서 다시 기회 없습니다

분양문의 **02-757-3000**

홍보관 주소: 용산구 서빙고로 17, 1층(센트럴파크타워)